

-전북 초수 합격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수로 전북에 합격한 신규교사입니다. 저 또한 초수 시절 합격 수기에서 많은 도움과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수기이지만 읽어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74.67/100
2차	총점 96.32/100
	실기(인체소요) 37.33/40
	면접과 수업 실연은 따로 점수가 기재되지 않았는데, 두 개 합쳐 1점 정도 깎인 것을 보니 각각 소수점으로 차감된 것 같아요!

1차 공부 방법

1차 공부법에서는 제가 초수 시절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느낌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순 공부 시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사람마다 역량에 따라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1-2월은 강의를 듣느라 거의 순공부 시간이 없었고, 3월부터 4월까지 쉬는 날 하루도 없이 매일 달리면서 순공부 시간을 하루 10시간씩 잡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공부하느라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5월에는 번아웃이 와서 하루에 3시간, 5시간씩 밖에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6월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쉬는 날 없이 하루에 평균 8시간은 꼭 독서실에서 순공부를 하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10월 11월에 쉬는 날을 빼곤 거의 하루에 12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공부가 안될 때는 일주일 내내 드라마도 보고 노는 날들도 있었습니다....ㅎㅎ 스스로 컨디션 조절을 잘 하는게 매일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스터디 해야 하나요?

저는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며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 스터디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후반기에 표현파트가 너무 보기 싫어서 동기 언니와 아침 기상 표현스터디를 하기는 했지만 스터디는 공부의 질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기 싫고 지겨운 이 공부를 억지로나마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만드는 원동력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공부 취향에 따라 다르니 본인의 공부 성향을 잘 파악해서 선택하세요!

● 서브노트, 단권화 필요한가요?//필독서 읽어야 하나요?

초수라면 서브노트는 절대 절대 하지 마세요. 저도 세 번 정도 시도했다가 시간만 잡아먹고 포기했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들다 보면 기본서보다 보기 좋게 내 스타일로 만들어야지~하는 욕심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기본서랑 서브노트 내용이랑 양이 비슷해져 있거나, 기본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뺀 내용이 있다면 나중에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초수라면 단권화를 추천드려요. 단권화는 자기가 제일 보기 편한 기본서나 심화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단권화를 할 때 기본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 예상문제, 심화서 도판, 다른 강사 자료를

끼워 붙여서 두껍게 만들었어요. 심화서는 구조화는 잘 되어 있으나 내용이나 도판이 많이 부족해서 비추합니다. 단권화는 절대 몇 개의 키워드만으로 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장에서 보는 요약본일 뿐이에요. 회독을 위한 단권화 책은 필요한 내용을 짝짝 담아 공부의 폭과 깊이를 넓히세요.

그리고 저는 필독서를 기본서 옆에 두고 틈틈이 읽었습니다.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되 이해되지 않는 개념, 배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은 부분, 기본서에 없는 학자나 작가를 보고 싶을 때, 역사의 흐름을 줄글로 읽어보고 싶을 때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독서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오려내서 기본서에 단권화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교에서 미니피문제와 상회기법 등등도 필독서를 보고 정확히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수인데 필독서를 정주행해야지 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항상 무슨 공부든 기본서와 기출이 중심, 그리고 작은 가치를 뺏치는데 필독서와 사전을 활용하세요! 아래는 제가 읽었던 필독서입니다. 다른 책은 한 번도 본적 없고 아래 책들만 필요할 때 참고했습니다.

미술교육의 기초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한국미술문화의 이해
클릭 한국미술사
진중권 서양미술사(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젠슨 서양미술사
최범의 서양 디자인사

● 다른 강사 책, 강의 들어야 하나요?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수는 시간이 부족해서 한 강사 커리 타기도 바쁘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육아나 일을 병행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늘어드는 습관과 게으름, 의욕 부족 등 다른 이유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것인지 1년이란 절대적인 시간은 초수에게도 부족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저는 위상팀 커리를 중심으로 3D 심화자료, 3D 디자인 기본서, 3D 행사미사 및 미교 강의를 참고했어요. 각 강사들마다 저마다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무조건 수집해라 가 아니라, 각 강사들이 자신의 강점 파트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참고하고, 기본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때 다른 강사들의 자료를 참고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의 양이 아닌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은 초수의 상대는 똑같은 초수가 아닌, 재수 이상의 선생님들입니다. 초수가 재수 쌤들을 상대로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 공부의 양이 아닌 이해의 폭을 넓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강의들을 두루두루 섭렵하세요. 단, 자신의 공부성향이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강사 지식을 소화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한 강사를 믿고 가세요!

● 이해와 암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와 암기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초수 선생님들이 '이해와 암기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이해가 먼저인가요, 암기가 먼저인가요?' 라고들 물으시거나 궁금해 하시는데 저 또한 공부 초기에는 이 둘의 구분이 정확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 '이해와 암기는 불가분의 관계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해

를 하신 쌤들은 자기도 모르게 절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암기가 되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해란,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의 뜻을 정확히 인지해서 자료를 보지 않고도 키워드를 넣어서 타인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이해시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해가 되면 암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키워드들과 자기만의 부연 문장들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즉, 암기는 이해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떨어뜨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서든 사전이든 글자 그대로를 스캔하듯이 암기하신 분들은 문제에서 특정 개념을 조금만 다르게 꼬아서 물으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 외운 내용이 쉽게 인출이 되지 않거나 취지가 나가버리는 실수를 하시게 됩니다. 즉, 암기는 이해하는 공부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이해’ 라는 것은 그럼 남에게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몇 개의 키워드만 외워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개념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깊게 이해하신 분들은 항상 ‘사고’하는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사고란, 어떤 사조나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깊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흔히들 미교나 미술사를 공부하실 때 ‘이 사조의 배경은 000이고, 특징 3개는 000이고, 한계점은 000이다.’ 라고만 암기를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암기하는 공부와 이해하는 공부는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아래 표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암기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은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 다음으로 나온 사조이다.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배경에는 ‘어린이 중심 교육사조’, ‘표현주의 미술의 등장’이 있다. 그리고 특징 3개는 ~이다.
이해(사고) :원인과 결과 파악	<p>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 사조는 학생들을 산업발전을 위한 희생양과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학생들의 성장보다는 산업혁명이라는 사회 발전에 교육의 중점을 둔 것이다. 이러한 표현기능중심 미술교육의 한계점은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u>미술교육적 배경</u>이 된다.->따라서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도구화가 아닌 인간성 육성, 전인적 성장이 된다.</p> <p>한편, 교육 철학 사조에서 어린이의 잠재력을 중시하여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교육 즉 소극적 교육을 중시했던 루소에 의해 어린이 중심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 사상을 미국의 존 듀이가 계승하여 아동의 성장과 경험을 중시하는 어린이 중심 교육사상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는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u>교육철학적 배경</u>이 된다.->따라서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u>교육방법</u>은 교사의 간섭 배제, 어린이 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 표현유형에 따른 지도이다.</p> <p>그리고 20c초에 등장한 표현주의 미술사조는 인간 내면의 표출 수단이 미술임을 강조하며 미술은 재현이 아닌, 작가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임을 주장하게 된다. 이는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u>미술사적 배경</u>이 된다.->따라서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내용은 마음속의 정서, 기억, 경험이며, <u>자유로운 자기표현</u>을 중시한다.</p>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해(사고)하는 공부는 키워드만 나열해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념의 키워드 뜻을 풀어내는 부연 문장들을 줄글 형식으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임용은 단순 키워드 싸움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구조화해서 외우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πππ

어떤 원인(배경)이 있으면 그에 의해 교육사조나 미술사조의 목적(사상)이 생기고 교육방법(표현방법, 기법)이 생기며 기타 특징이 생깁니다. 이때 임용 문제에서는 원인(배경)을 주고 목

적(사상)이나 교육방법(표현방법)을 묻거나 혹은 그 반대를 묻습니다. 이때 키워드만 단순하게 외우시고 가시면 5줄이나 되는 빈칸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 이해를 위한 암기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저는 단순암기를 정말 못하는 성향이라 표현파트를 공부할 때 매우 힘들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단순암기보다는 개념들을 정확히 분류해서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분류해서 암기를 하면 출제자가 묻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답을 쓸 수 있어요. 이는 곧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취지파악'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풍속화가 조선후기에 유행하게 된 배경은 ~이다. 하고 쪽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풍속화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후기 문예를 중시했던 영정조 시기에 문예부흥기 때문이며, 역사적 배경은 명청교체기에 따라 소중화사상이 유행하여 우리 조선의 문화와 삶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사상적 배경은 실용과 실증을 중시하는 실학이 유행했기 때문이며, 경제적 배경은 상공업이 발달하며 중인과 상민계층이 성장하여 그들의 미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런식으로 배경 하나도 세세하게 분류하여 구조화시킨 후 암기하였습니다. 이는 표현기법, 방법, 표현과정, 미교 작가 등등 모든 공부에 포함되는 암기 방법입니다.

● 기출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저는 4월부터 기출문제를 손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강사들의 문제를 보지 않고 기출문제만 완벽히 분석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출분석을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p>객관식</p>	<p>-기입형 대비: 문제, 보기, 답지에 나오는 모든 용어, 사조의 뜻을 세계미술용어사전, 현대미술용어사전에서 찾아 요약해서 이론서에 단권화하기(2020년도 '평탈법'도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기출에 아주 살짝 언급되었던 용어입니다.) -자주 출제된 사조(작가) 정리: 객관식에 자주 출제 되었지만 아직 단독 서술형으로 나오지 않은 사조나 작가는 깊이 있게 공부하세요. 2020년에 척클로스가 서술형으로 나왔었죠. 폰타나나 네오다다이즘도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필독서로 파세요!!! 필독서나 사전을 마냥 읽고 스테디해서 정리하는 것은 초수 상황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TT</p>
<p>02-08년도 문제</p>	<p>-해당연도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비교 관점을 잡으세요. 예를 들면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이란 바우하우스 건축을 비교하는 주관식 문제가 있는데, 이를 통해 아르누보 건축과 모더니즘 건축을 크게 비교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날드저드와 잭슨폴록 비교 문제 같은 경우 미니멀리즘과 추상표현주의의 사상, 재료, 기법을 비교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쉽게 넘기는 연도의 문제들인데 엄청난 비교 포인트들이 많아요!!</p>
<p>최근 문제</p>	<p>-문제 형식 이해에 제일 좋은 것이 최근 3개년 기출입니다. <보기>의 글을 보고 유추하여 다른 키워드로 변환하여 답을 써야 하는 문제형식이 있고, 두 개의 도판만 주고 해당 사조의 사상과 그에 따른 재료와 표현기법을 비교해서 써야하는 문제 형식이 있으며 단순히 암기해서 써넣는 문제형식도 있습니다. 문제 형식은 정말 다양하지만 최근 3개년을 반복해서 풀다 보면 형식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 형식에 익숙해지면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취지파악 연습을 하세요. 장땀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취지파악은 출제자가 묻는 것만 답지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암기하신 분들일수록 시험장에서 내가 외운 것 중 무엇을 써야하지? 하고 고민되는 순간이 더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출</p>

	<p>제자는 작품의 표현재료를 쓰라고 했는데, 자신이 외운 표현기법, 그로 인한 표현효과, 재료의 장단점 등등을 나열한다면 점수를 제대로 받기가 힘들 것입니다.</p> <p>취지파악=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출제자가 묻고 싶은 것이 뭔지 그렇다면 무엇을 써야 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답을 찾아보세요. 강사의 답지는 절대적인 답지가 아닙니다. 11월이 될 때까지 기출문제의 답을 확정 짓지 말고 필독서나 논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답을 계속 업데이트 하세요.</p>
예상문제 만들기	<p>-위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9월쯤 되면 슬슬 이론이 쌓이면서 이 문제가 나오겠다 하는 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출문제 형식을 기반으로 예상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풀어보는 것을 반복하세요. 실제 시험문제처럼 엄청난 문제를 시험 양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출을 쪽 보시면 미니멀리즘 기출 빈도가 높습니다. 타 사조와 비교문제도 종종 출제되었죠. 그래서 저는 미니멀리즘vs반항태 미술, 추상표현주의, 대지미술, 과정미술 등과 관련하여 비교 연습을 정말 많이, 그리고 자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미사 문제에 저드와 헤세 비교문제가 나왔을 때 고민도 없이 답을 술술 적어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뇌록 문제의 경우도 기출에서 오방색이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단청 파트에서 색을 공부하며 사전을 찾아보가다 단권화 시켰었는데 딱 출제가 되어 속으로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p>

2차는 수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준비해서 재업로드 하겠습니다.

부족한 수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yjs3park@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다만 질문 주실 때 조금 구체화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ㅎㅎ

ex. 기출분석 방법이 궁금해요(x)//기출을 이런식으로 분석해보았는데 적절한 방법인가요?(o)
올해 꼭 합격하셔서 내년에 같은 교단에 서길 바라겠습니다.